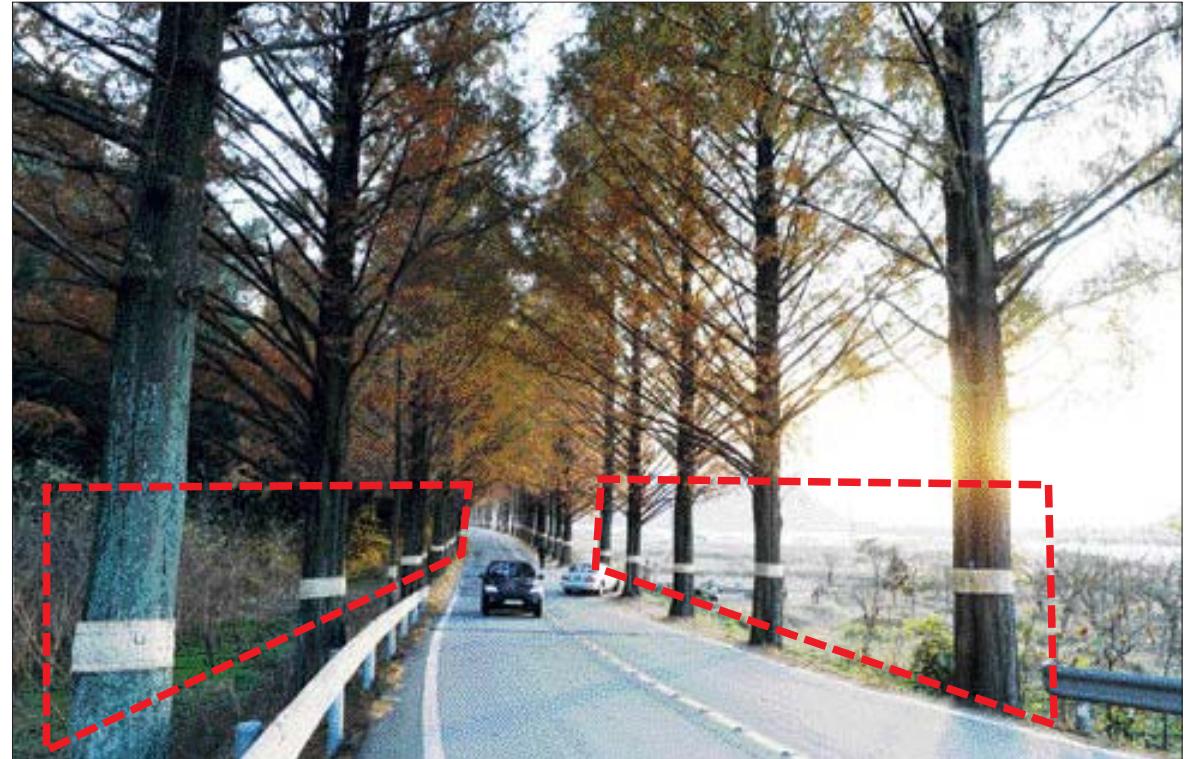


## 어떻게 지켜온 메타세쿼이아인데… 도로 확장 17그루 또 잘려나갈 위기



담양~순창간 4차로 확·포장 공사에 따라 훼손위기에 처한 담양을 금월교 인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접선안 우측 5그루와 좌측 12그루 등 17그루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손꼽히는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이 도로공사로 인해 일부 베어질 위기에 처해 환경단체와 군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8일 담양군에 따르면 예산 지방국토관리청은 최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담양~순창 4차로 확·포장공사를 위해 금월교 부근 17그루의 훼손을 예고했다.

예산청의 계획대로라면 400여그루의 메타세쿼이아가 2km가량 늘어선 이길이 수십m 가량 끊기게 된다.

이에 가로수사랑 시민연대 등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군 등에 민원을 제기, 설계변경을 요구했으며 예산 지방국토관리청은 이를 받아들여 최소 4그루 이내로 훼손을 줄이기로 했다. 시민연대측은 한 그루도 손상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를 진행시키려 협의중이다.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은 지난 2000년 5월 도로 확장시 가로수가 베어질 위기에 처하자 주민들이 나서 178그루 중 114그루를 지켰다.

담양군 관계자는 “학동교 부근 20그루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금월교 부근 나무 가운데서도 훼손될 나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양측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담양군이 1972년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담양읍~금성면까지 8.5km구간에 메타세쿼이아 5천그루를 심으면서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담양=노정훈기자 cjob17@

##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완화

법무부는 18일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전력이 있는 고용주가 다시 외국인을 고용할 때 취업비자 발급을 일정기간 제한했던 행정제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출입국관리법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규정을 개정,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가 적발돼도 범칙금만 내면 바로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노동자 재고용을 위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가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채용하고 싶은 외국인에게 보

내면 해당 외국인은 이를 근거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간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1회에 1천만원 이상의 범칙금·벌금 ▲고용기간 3개월 이상에 500만원 이상 범칙금·벌금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2회이상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 선고 등에 해당되면 3년간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이번 행정제재 완화는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현재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이 제한된 기업까지 소금 적용된다.

/연합뉴스

## 탄소배출권거래소 광주·전남 유치 추진위 출범

광주시와 전남도, 한국전력거래소는 19일 오전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탄소배출권거래소 광주·전남 유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선다.

유치위는 2010년부터 탄소배출권 시범사업과 지속적인 모의거래 등 배출권거래소 유치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세종시 직격탄…신음하는 지방

②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 자본 유치 어려운데… 역차별 ‘치명타’

## 특혜 그렇게 몰아주면 어느 기업 지방 오겠나

## 세종시 수정 국가 전체 차원서 재논의해야

각종 세제혜택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정운찬 국무총리가 직접 나선 ‘세종시 세일즈’는 외자 및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종시 입주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국세)와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지방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 간 50% 감면 등의 각종 세제혜택과 함께 땅값 또한 조성원가 3.3㎡당 227만 원보다 턱 없이 낮은 가격에 제공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히 파격적인 혜택이다. 여기에 정운찬 국무총리 등 정부가 직접 나서 현대·기아자동차와 LG, 삼성전기, 롯데그룹 등 국내 대기업의 일부 계열사를 이전하는 한편 30대 그룹 소속 일부 기업을 이전하는 방안을 재계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국 기업에는 경제자유구역에 배임가능 혜택을, 국내 기업에는 지방이전 수도권 기업 수준의 혜택을 각각 부여할 계획이다.

이에 반해 전남이 사활을 걸고 있는 광양

만권 경제자유구역은 기업유치 실적은 초라하다.

2020년 완공 목표로 여수와 순천, 광양, 경남 하동 일원 95.56㎢에 5개 지구 22개 단지를 개발중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순수 외자기업은 하나도 없이 현대하이스코, 현대스틸 등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소 제조업을 중심으로 47개 기업 유치에 그쳐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 가운데 공장은 현대하이스코 등 24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오리엔트 조선 등 6개 업체가 공장 신축중이다. 나머지 17개 업체는 아직 미착공 중이다.

부지가 조성된 단지를 중심으로 한 분양 실적은 92%에 달하고 있지만, 현재 개발중인 단지를 감안하면 기업유치는 아직도 ‘꼽

첩산중’인 셈이다.

따라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뛰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도쿄 현지에서 1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회를 벌이는 등 투자유치에 ‘몰입’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각종 법적·제도적 제약 등은 여전히 외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주체의 제약, 결산영여금 해외송금 규제 등은 세계 유수의 경제특구와 비교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5월에는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장이 광양서 협의회를 갖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청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자유구역의 법적·제도적 제약이 경

제위기와 맞물려 국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제사회 기준에 맞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종양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이러한 의견을 청와대와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세종시’ 문제가 터져 나

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아직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지지부진한 자유구역의 활성화에도 치명적 악영향도 우려된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고홍재 공보관은 “대기업이 유치되어야 하는데 세종시가 제시한 혜택이 사실화된다면 어느 기업이 지방에 내려오겠느냐? 세종시의 과장은 경제자유구역이 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발전연구원 관계자는 “세종시 문제

가 정치적 문제로 접두부가 되면서 국가의 경

제적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세종시 수정을 추진하

려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국가 전체 차원

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견기업

## 세종시 이전 95% 마음 굳혀”

### 정총리 “MOU 기업도 많아”

정운찬 국무총리는 18일 세종시 입주 추진 기관과 관련, “중견기업, 이름만 대면 금방 알만한 상당한 기업들이 오겠다며 90~95% 마음을 굳히고 있다”고 말했다.

정총리는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피니언 리더스클럽(OLC) 경제기자회’ 초청 조간간담회에서 “행정부처만 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가져서 (세종시로) 오려는 기업들이 생기더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총리는 세종시 수정 추진 이전의 기업 유치 활동에 대해 “상당히 오랫동안 국내외 기업들과 접촉했고,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국내외 기업들도 여럿 있다”면서 “그러나 MOU라는게 약속을 안 지켜도 상관없는 것이고, 실제로 투자에 나서겠다고 한 곳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 논의가 진행된 이후에는 “기업들이 땅값이 좀 비싸다. 다른 사람(기업)들도 들어오느냐”는 등 애로점을 문의하고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세종시가 좋은 도시가 안되면 국가

경쟁력 제고와 국토의 균형발전 등 애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자족기능이 튼튼해야 한다”고 원안 수정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러나 “여러 곳에 기업중심도시가 있고, 세종시에 특혜가 갈바위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 세종시에 대한 ‘기업중심도시’ 표현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정총리는 사교육 대행과 관련해선 “고입·대입 입시제도와 고교를 다양화해야 한다”면서 “입시방식 단순화 등 여러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오후 10시 이후 학원을 뜻하게 한다든지, 과외도 신고제로 하든지 해서 (사교육비와 가계부채간) 고리를 끊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외고, 과학교문 등을 종합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해서 “정부 밖에 있을 때는 대기업이 뛰어가기까지 가서 장사를 하느냐는 생각을 했으나 지금은 합리적인 절충안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세기보정기!! 세계브랜드의 자부심을 세우다!

세계브랜드의 자부심을 세우다!

세기스타·세기보정기

www.segeobjunggi.com

1588-5400 080-222-0101